광주일보 선정 2007년 광주·전남 10대 뉴스

여수 2012 세계 엑스포 유치

여수는 지난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컨벤션센터 '팔레 드 콩그레'에서 열린 '제142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에서 경쟁국인 모로코와 폴란드를 누르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도전해 성공한 여수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고, 우리나라도 선진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초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2012년까지 모두 19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신정아 파문' 광주비엔날레 휘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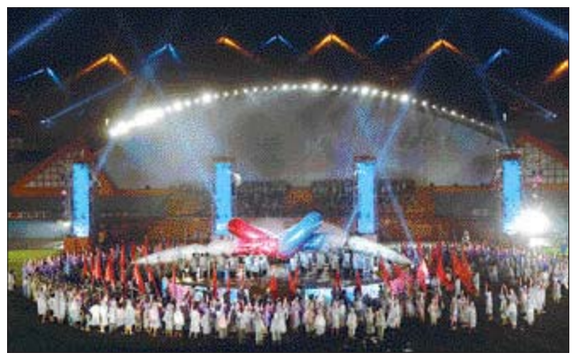
올 한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신정아씨 사건은 창설 14년을 맞은 광주의 대표적 문화축제 광주비엔날레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 7월 신정아씨가 '가짜 예일대박사'를 무기로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 선임됐다가 학위 위조 파문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비엔날레재단 이사진의 총사퇴로 이어졌으며, '비엔날레호'는 이사장 부재로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감독 선임 시스템은 물론 재단 운영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재단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뭇매를 감내해야 했다.

광주 문화수도 추진 본격화

광주지역 미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정 종합계획이 최종·확정됨과 동시에 대국민보고회를 기점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총 사업비 5조3천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까지 완성된다. 문화도시사업은 지난해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올 10월 1일 법정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법적·행정적 토대를 갖췄다. 특히 지난 10월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대국민선포식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광주시 역대 최대규모 성공 체전

광주시가 지난 1993년 대회 이후 14년만에 전국체전을 유치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8~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 최고 규모로 치러졌다. 올 체전에서 광주는 대회 운영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생산유발 효과 1천100억원, 고용유발효과 6천명, 부가가치효과 500억원의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 또 문화, 예술, 평화, 인권의 광주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등 성공체전을 치렀다는 평을 들었다.



무안 국제공항 착공 8년만에 개항

국토 서남권의 대 중국·동남아 관문이 될 무안국제공항이 지난 1999년 말 착공 이후 8년 만인 지난 11월 8일 개항했다. 총 사업비 3천56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2천567㎡에 2천800m 길이의 활주로 1개, 항공기 9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계류장 9만여㎡, 차량 2천여 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여객 및 화물터미널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공항 가운데 인천, 김해, 제주, 김포에 이어 5번째 규모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지난 2월 11일 새벽 4시 5분께 여수 화장동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수용중이던 중국인 김모(39·화재 당시 사망)씨가 불을 질러 외국인 10명이 쇠창살 안에 갇힌 채 화마(火魔)에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화재로 인한 외국인 인명 피해로는 가장 컸으며,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진행됐다. 참사 당시 근무했던 직원 6명은 7월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착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식이 지난 11월 8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열렸다.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726만 5천㎡(220만 평)에 건설되는 공동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국농촌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파연구소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등 5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오는 2010년 한국전력 등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되면 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보성 율포 앞바다 연쇄 살인사건

지난 9월 말 보성군 율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어부 오모(70)씨가 두 차례에 걸쳐 남녀 관광객 4명을 살해하는 엽기적인 '70대 어부 살인사건'이 발생,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오씨는 먼저 놀러온 남녀 대학생 2명을 살해하고, 이후 관광 온 여성 2명을 배에 태운 뒤 성추행한 뒤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보성군은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친절운동을 벌이고, 경찰은 해수욕장 주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다시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다.

건설경기 최악 건설업체 줄도산

올해 광주·전남은 거림건설, 대동건설 등 40곳에 달하는 건설업체가 문을 닫을 만큼 건설업계 전반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주택 폭증 등이 심화된 데다 11월 이후 도산한 업체가 10곳을 넘어서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침체는 해당 업체는 물론, 협력업체 및 금융권의 타격, 고용 악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인해 11월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1.06%)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개청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지방경찰청이 7월 2일 '빛의 경찰' 슬로건을 내걸고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에 둥지를 틀고 정식업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초대 청장이 비위 혐의로 3개월간의 감찰을 받고 직위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12월 12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신청사로 입주한 뒤 새로운 각오로 광주 치안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특히 광주경찰은 '문화·인권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문화·인권 경찰'을 추구하고 있다.